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최종 승소

6월 30일, 대법원 판결 '환영'
잔여 토지 · 전각 소유권 확인
"한국불교 정통 법맥 계승"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순천 선암사 전경. 사진 출처=선암사 홈페이지

태고종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가 전 주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선암사에 남아있던 조계종 명의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갈등을 종식하고 선암사가 본래의 청정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고종은 6월 30일 발표한 '선암사 대법원 승소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법향이 가득한 천년고찰 태고총림 선암사의 주인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태고종임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역사적 전기는 종도들의 깊은 원력이 이뤄낸 위대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태고종은 "이번 판결로 지난 70여 년간 종단사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던 아픔이 마침내 해소됐다"며 "선암사의 모든 토지와 전각이 태고종 선암사의 소유임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선암사를 지키기 위해 용맹정진을 이어온 선암사 대중 스님들과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출가의 근본도량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모은 전 종도의 애종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10일 개최된 '선암사 승려대회'를 판결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며 "전국 종도가 한뜻으로 집결했던 선암사 승려대회는 오늘의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 동력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태고종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엄숙히 존중하는 가운데 선암사가 본래의 청정 수행도량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불교계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암사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이자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는 귀의처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종도와 함께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는 결국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한 대승불교 구현에 더욱 용맹정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법원 제3부는 6월 25일 태고종 선암사가 등기 실제 이행자인 전 주지를 상대로 낸 소유권(1차 소송 소유권이전 외 잔여 토지) 말소등기 사건(2026다203009)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이 3월 12일 선고한 판결(2025나210372)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률상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은 태고종 선암사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70여 년 동안 이어졌던 분쟁은 태고종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태고종은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 개원

7월 운영 시작…금강 스님 특강
관광 · 치유 연계 특화 프로그램


서울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사진은 지난 3월 충정사에서 열린 '선명상과 함께하는 생명공감 콘서트' 모습.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가 서울 남산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7월부터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선명상중앙본부는 이번 개원을 통해 도심 속 사찰에서 시민과 관광객, 외국인 등이 일상적으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선명상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별도의 개원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7월 10일 오전 10시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을 초청해 선명상 특강을 열고 개원을 알릴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서울시민과 직장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치유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다양한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 운영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무도와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운영은 선명상중앙본부가 직접 맡는다. 지도법사 1명과 실무자 1명을 상근 배치하고, 매월 프로그램별 지도자 섭외와 홍보, 참가자 접수 등을 담당한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별도 전담 지도법사를 두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한다.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위한 체험관 개별 대관도 지원한다.

선명상중앙본부는 "선명상은 한국불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마음 수행법으로,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정신건강 해법"이라며 "도심 속에서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접하고, 몸과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신청과 운영 현황은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와 충정사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0-5700-1842 김내영 기자

"입장 왜곡 유감…정책 선거 되길"

14개 본사 주지, 7월 2일 성명
"본사 독립 · 자율성 존중돼야"
"공정선거 훼손엔 종법 조치"

전국 14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최근 현 총무원장 스님의 재임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는 앞서 6월 11일 발표된 18개 교구본사 주지 공동 입장문이 일부 스님들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논란에 따른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용주사·월정사·마곡사·수덕사·동화사·은해사·해인사·범어사·고운사·화엄사·대흥사·관음사·선운사·봉선사 등 전국 1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7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백양사에서 봉행된 백운 스님 6주기 추모재를 계기로 진행된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의 중대한 일정인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에 따라 공정하고 여법하게 치러지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교구본사 주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그럼에도 간담회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 지지로 비쳐질 수 있도록 전달된 것은 본래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지 스님들은 교구본사 주지가 각 교구를 대표해 종단의 안정과 교구 운영을 책임지는 소임을 맡고 있는 만큼, 그 판단과 의사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지 스님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교구본사 주지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종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종단의 공정한 선거질서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구본사 주지들의 명의와 권위가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활용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종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출마자의 종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중심 선거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한 품격 있는 선거문화라는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주지 스님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이 종단의 권위와 신뢰를 바로 세우고, 모든 종도가 승복할 수 있는 여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모든 종도들이 종헌종법과 선거질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스님들은 "앞으로도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거나 종단의 공정한 선거질서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종헌종법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연구소, 종책개발 논문 공모

10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AI · 선명상 대중화 방안 등 주제

조계종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가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종책개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불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조계종의 미래 구상 △AI 시대와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와 대중화 방안 △AI 전환기, 스마트 포교의 혁신 모델 제안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사찰 역할 다각화 방안 등 4개 분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 이상 150매 이하로 작성해야 한다. 1쪽에는 논문 제목과 성명, 소속과 지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2쪽에는 600자 이상 800자 이내의 제출 논문 핵심 초록을 담아야 한다. 본문은 3쪽부터 시작하면 된다.

다만 기존 논문 표절이나 AI를 활용한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상 이후 적발되더라도 상장과 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종책 제안의 지적재산권은 조계종에 귀속되며,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논문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논문 접수는 이메일(fourdeva@wehago.com)로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수상자는 11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시상식은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는 상금 500만원이, 우수상 3명에게는 각 300만원이, 장려상 5명에는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02-2011-1993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